

골목경제 살리고... 시민건강도 챙기고...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 5대분야 29개 사업 추진

군산시가 코로나 일상회복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2년 1개월간 지속되었던 사회적거리두기가 지난달 18일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일상회복 지원 정책을 집중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굴한 군산형 일상회복 정책은 5대분야 29개 사업으로 88.8억원 규모이며, 주요분야로는 문화관광 활성화 행사 및 축제, 경제민생 지원 보건복지 및 생활안전 등이다.



시간여행축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객 다시 활기... 다시 군산으로!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종료에 앞서 지난달 15일 다시 관광 군산으로! 라는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군산시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했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대규모 관광보다는 소규모 개별관광으로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 여행업체 관광객 유치시 지원 기준을 기존 8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고, 숙박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장기간 침체되었던 여행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어 이달부터는 SNS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캠퍼터를 재개해 숨겨진 군산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2022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관광 안내소 8개소도 전면 운영한다.

특히, 시간여행마을에는 매일 4회 해설사 동행투어를 진행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값 있는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대문화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기지개... 시민 참여형 문화지원 정책 추진

군산시민들이 코로나19 일상회복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로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군산예술의전당 좌석 중 50%만 개방했던 부분을 대공연장 1,200석 및 소공연장 45석으로 전면 개방한다.

또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무료공연 및 전시를 진행하고 예술아 놀자광장

시민의 날 행사



콘서트,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썸머 페스티벌', KBS 국악한마당 등 일상회복 기념 프로젝트 문화 행사 준비도 한창이다.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사업'도 월 3권에서 5권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서점 활성화도 도모해 책의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시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 이어져

전국 최초로 국산맥아를 사용해 국내 유일의 지역특산 수제맥주를 생산·판매하는 군산비어포트 일원에서 오는 9월 중 약 3일간 '제1회 군산맥주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썸머 페스티벌



지역특산 수제맥주 문화를 공유하고, 군산 내 향의 스토리와 연계한 국내 유일의 로컬맥주 축제를 열어 대한민국 수제맥주 대표도시로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해 내겠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지역경제 회복 붐업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 힐링캠프 '기운난 DAY' 축제도 기획 중에 있다. 10월 중 시민체육대잔치와 힐링콘서트를 병행해 코로나19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2년간 비대면으로 추진됐던 시간여행축제는 대면축제로 본격 전환되고, 실내에서 약식으로 진행했던 군산시민의날 행사도 야외 행사로 이뤄지면서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 맞이를 통한 골목상권 회복 기대... 민생경제 지원 정책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저리 특례보증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1.7% 저리 대출 50억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위해 배달의명수-한번 더 이벤트를 진행해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및 할인쿠폰을 진행하고, 배달의명수앱에 가맹점 홍보할인 코너를 운영하는 등 홍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유도한다.

특히 지역업체,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충분한 금융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서민금융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서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해 청년층 취업 기회도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올바른 음주문화 캠페인 롱코비드 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시민 안전망 강화

약 2년여만에 해제된 거리두기로 사적모임도 제한없이 술자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음주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군산시 지역차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정
침체된 여행업계에 '활력' 불어넣어
올 첫 개최 군산맥주 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 축제의 장 잇따라
배달의명수 이벤트·서민금융 지원
롱코비드 치료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체력왕 선발대회

협회의 및 읍면동 군산경찰서 협업을 통해 수송동, 나운동 일원 술집거리에 올바른 음주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초 지역차안협의회 안전장정을 통해 5월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군산시민들중 롱코비드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롱코비드 심리치료센터'도 운영해 코로나 후유증 기초 상담과 심리상담을 병행한다.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력진검교실과 운동처방을 진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해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 외부활동 축소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건강회복도 적극 지원한다.

황철호 시장 권한대행은 "힘든 상황속에서도 2년 1개월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신 27만 군산시민여러분의 노고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며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일상회복준비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6개반 55명으로 편성된 군산시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해왔으며, 정부 거리두기 방침과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체감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